

연구논문

아동기 또래에 의한 신체적·심리적 폭력이 성인기 우울 및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the Victimization of Physical and Psychological Violence by Peers in Childhood on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in Adulthood

이수인^{a)} · 박준식^{b)}

Soojin Lee · Joon-Shik Park

이 연구는 18세 미만의 아동기 또래에 의한 폭력피해가 성인기 우울과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심리적 폭력피해와 신체적 폭력피해가 성인기 우울 및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자살생각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인 우울을 통제한 후에도 학교폭력이 성인기 자살생각에 영향이 있는지 살펴본다.

연구자료는 KGSS 2012를 활용했고 SPSS 18을 통해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적 폭력은 물론 심리적 폭력이 성인기 우울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둘째, 우울이 통제되지 않은 모형에서 신체적 폭력피해가 성인기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신체적 폭력피해의 경우 자살생각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우울을 통제한 모형에서 심리적 피해는 물론 신체적 폭력피해도 효과를 드러내지 않았다. 이것은 신체적 폭력피해의 경우 우울을 통제하면 자살생각으로 이어짐을 예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SIA6A3A01033504).

* 이 논문은 한림대학교 교비연구비 HRF-201609-003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a) 한림대학교 생사학연구소 HK 연구교수.

b)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한림대학교 생사학연구소장 박준식.

E-mail: jsp3430@gmail.com

심리적 폭력피해의 경우 신체적 폭력보다 우울과 더 강한 상관성을 가지면서 우울에 대한 효과는 적었고, 우울이 결정적 변수인 자살생각에 대해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것은 심리적 폭력피해가 우울이나 자살생각에 대해 신체적 폭력피해보다 영향력이 적다기보다는 그 효과가 발현되는 기제가 좀 더 복잡한 양상을 가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섯째, 신체적 폭력과 심리적 폭력의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난 것은 신체적 폭력피해와 심리적 폭력피해에 대한 연구와 개입에서 양자가 구분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주제어 : 또래폭력, 심리적 폭력피해, 신체적 폭력피해, 성인기 우울, 성인기 자살생각

This study aims at reviewing whether the victimization of peer violence in childhood under the age of 18 affect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in the adulthood. Specifically, the study analyzes how the victimization experience of psychological and physical violence affect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in adulthood, and verifies whether school violence affects suicidal ideation in the adulthood after controlling depression which is known as the most decisive factor of suicidal ideation.

For the research data, KGSS 2012 was used, and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by using SPSS 18.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confirmed that both experiences of psychological and physical violence had significant influences on adulthood depression. Second, physical violence had significant influences on adulthood suicidal ideation in the model uncontrolled depression. This indicates that the victimization of physical violence has direct influences on suicidal ideation. Third, both of psychological and physical violence have never relationship with suicidal ideation after controlling depression. For physical violence, this means that controlling depression can prevent the effects of physical violence on suicidal ideation. Forth, for psychological violence, even though it had a stronger correlation with depression than physical violence, its impact on depression was lower than psychological violence, and it did not show to have any

effect on suicidal ideation in the model uncontrolled depres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mechanism of effects of psychological violence is more complicated than that of physical violence. Fifth, the difference between the effects of physical and psychological violence indicates that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psychological violence with physical violence in the study and intervention of school violence.

Key words: peer violence, victimization of psychological violence, victimization of physical violence, adulthood depression, suicidal ideation in adulthood

I. 서론

최근 부산의 여중생 몇 명이 후배를 피투성이 되도록 폭행한 사건에 이어 강릉에서도 청소년 집단폭행 사건이 공개되면서(서승진 2017). 소년법 폐지 청원이 등장하는 등 청소년 폭력문제는 우리사회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지난 22년 동안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NGO)인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하, 청예단)이 실시한 2014년 전국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때부터 현재까지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학생들 가운데 최근 1년간 학교폭력피해 경험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은 32.9%였다. 이들 가운데 50%가 폭력 피해경험을 매우 고통스럽다고 표현했으며, 피해자들 중 42.9%는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청예단 2017).

이러한 사회현실을 반영하여 학교 안팎의 또래에 의한 폭력이 청소년들의 자살과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며(권세원 외; 김은영 2014), 그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어 왔다(김은영 2014; 김재엽·이근영 2010; 강대

영 2014; 하진희 2014). 아동기 폭력피해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일반적으로 18세 이전의 성장기에 학대나 폭력을 당한 경험은 단기적 영향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심리적 부적응을 야기하고(Bifulco et al. 2002; S Martsof 2004), 자살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Nilsen & Conner 2002; Langhinrichsen-Rohling et al. 1998; 박경 2005).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또래에 의한 폭력피해를 다룬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피해의 장기적인 영향보다는 단기적 영향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고, 장기적인 영향에 관심을 둔 경우에도 그 시기가 청소년기에 국한되어 있다(권세원 외 2013; 정현주 2011). 말하자면 또래에 의한 폭력피해 연구들이 주로 중·고등학교의 청소년기에 집중되어 있고, 또래폭력 피해가 성인기의 부적응과 문제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다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시기의 또래폭력 피해경험이 성인이 된 이후까지 생애전반을 통해 자살이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이 추적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 최근의 또래폭력 실태조사는 주목할 만한 사실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폭력피해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초·중·고 학생 7,531명을 대상으로 한 청예단의 2016년 12월~2017년 2월의 조사결과가 한 공중파 뉴스에 보도되었다(한상희 2017; 서정호 2017). 그에 따르면 폭력피해 학생 가운데 초등학교생이 68.5%에 달하였다. 학교 안팎에서 또래에 의해 폭력을 당한 학생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초등학교생인 것이다. 초등학교생들이 경험한 폭력의 양상은 욕설이나 모욕 등의 언어폭력이 28.2%, 맞았다는 물리적 폭력이 24%, 집단 따돌림 16.1%, 협박이나 위협이 11.7%로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충격적인 점은 초등학교 3학년 이전에 또래폭력을 경험했다는 누적응답률이 42.3%에 이른다는 사실이다(이종익 외 2017). 이러한 조사결과는 또래폭력이 증가하고, 점점 피해 연령이 낮아지고 있으며, 또래폭력 가운데 언어적 폭력을 포함하는 심리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을 보여준다.

이제까지 검토한 우리나라 또래폭력의 실태와 또래폭력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본 연구는 첫째, 초등학교 저학년을 포함하는 18세 미만의 아동기에 발생한 또래에 의한 폭력피해가 수십 년이 지난 성인기에 이르러서도 우울이나 자살생각에 영향 미친다는 점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둘째, 또래에

의한 폭력 유형은 다양한데,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언어적 폭력을 포함하는 심리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을 구분하여 이들 각각이 어떻게 성인기 우울과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II. 선행연구의 검토와 연구문제의 형성

1. 또래폭력과 자살생각

자살에 대한 연구는 그것이 실행되고 완결되는 경우, 연구수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기 때문에 자살생각을 통해 자살연구들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자살은 자살행동(suicidal behavior) 그 자체만이 아니라 자살생각(suicidal ideation), 자살계획(suicidal intent), 자살시도(attempted suicide)를 포함하는 연속적인 개념으로 이해된다(Reynolds & Mazza 1999; Renolds 1988). 이 가운데 자살생각은 반드시 자살시도나 자살로 이어지지 않는지만, 절박한 최초 경고신호로서 자살시도나 자살성공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Kessler et al. 1999; 김선영 외 2014 재인용), 자살생각을 통하여 자살행동을 예측하고 예방하는 것이 가능하기(Beck, Kovacs & Weissman 1979; 김형숙 외 2013) 때문에 자살연구에 많이 이용된다. 따라서 또래에 의한 폭력이 성인기 자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본 연구에서도 자살생각을 사용하고자 한다.

국내·외 연구에서 또래 괴롭힘, 집단 따돌림, 왕따, 또래폭력, 학교폭력 등의 다양한 용어를 학교폭력(school violence)이라는 용어로 사용하여 왔다(박현선 외 2014; 임재연 2013). 그런데 2012년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폭력에 교사에 의한 폭력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따라서 학생들 간에 발생하는 폭력과 교사에 의한 폭력이 포함된 학교폭력을 구분하고자 한다.

학생들 간에 발생하는 폭력을 지칭하는 대표적인 용어는 또래 괴롭힘(bullying)이다. 또래 괴롭힘은 ‘한 사람 또는 집단이 다른 사람 또는 집단에게 의도적으로 고통을 일으키는 것’, 또는 ‘한 명 또는 한 집단의 학생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개인에 대한 신체적이거나 심리적인 학대’(Bosworth et al. 1999),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학생들에 의해 행해지는 부정적인 행동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Olweus 1993), 등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이상균·정현주 2013 재인용). 이러한 정의는 자신을 보호하기 힘든 상대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힘의 불균형, 지속성과 반복성을 특징으로 보여준다(Olweus 1995). 구체적으로 또래 괴롭힘에는 구타와 같은 신체적인 폭력, 욕을 하거나 별명을 부르는 언어적 폭력, 조롱·무시·집단에서의 의도적인 배제 등과 같은 심리적인 폭력이 포함된다(Smokowski & Kopasz 2005; 박현선 외 2014 재인용). 반면에 또래폭력 피해(peer victimization)는 또래 괴롭힘과 유사하지만 힘의 불균형, 행위의 부당성, 그리고 반복성 등을 수반하지 않는다(박재근 2015). 따라서 또래에 의해 발생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지 않은 폭력피해까지를 포함하여 본 연구에서는 또래폭력(peer violenc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또래에 의한 폭력피해는 청소년의 우울과 공격성, 학교생활 부적응 등의 문제를 야기하지만 특히 청소년들의 자살생각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큰 주목을 받고 있다(김은영 2014; 김재엽·이근영 2010; 강대영 2014; 하진의 2014). 또래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더 우울감을 많이 느끼고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으며, 피해의 정도가 심해질수록 우울과 자살위험이 높아진다고 보고되고 있다(Flannery et al. 2004; Meltzer et al. 2011; 김재엽 외 2014; 김은영 2014; 이해진 2016). 이처럼 또래에 의한 폭력피해는 청소년의 우울과 자살생각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쳐 우울과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래폭력이 우울을 매개하여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이미 여러 선행연구들을 통해 보고되고 있다(권세원 외 2013; 김재엽·이근영 2010; 김은영 2014; 김재엽 외 2014; 박병금 2007). 우울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지님으로써 지각, 기억, 인지, 사고 태도 등에 있어서 대인관계나 일상생활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마음의 부정적 상태를 말한다(김현미 2005). 선행연구들은 우울이 심리적 요인들 가운데 자살생각을 유발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서,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대에서 자살과 가장 밀접히 관련되는 심리장애임을 밝히고 있다(Fremouw et al. 1990; Kandel et al. 1991; Rainer 1984; Maris 1981). 국내의 연구들에서도 청소년에서 노인층에 이르기까지 우울은 자살생각을 예측

하는 가장 강력한 변인으로 검증되었다(김현순·김병석 2008). 본 연구는 아동기 또래폭력의 심각성과 장기적 효과에 관심을 두고 있으므로, 아동기 또래에 의한 폭력피해가 성인기 우울이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 자살생각의 가장 결정적인 심리요인으로 알려진 우울을 통제할 경우, 아동기 또래폭력 피해가 성인기 자살생각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2. 또래폭력이 우울, 자살생각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것은 또래에 의한 폭력피해가 피해시점으로부터 단기에 영향 미치는 것에서 나아가 장기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여러 선행연구들은 아동기 폭력피해 경험이 학교생활의 부적응을 가져오는 것에서 나아가 성인기 심리적, 정서적 부적응이나 문제행동 등에 영향을 준다고 지적한다(Bifulco 2002; S Martsof 2004; Nilsen & Conner 2002; 문지혜·정혜정: 2015; 박경 2005).

아동기 폭력피해가 아동기를 넘어 성인기 정신건강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은 폭력피해가 피해자의 부정적인 인지도식을 활성화하기 때문이다. 볼비(Bowlby, 1973)에 따르면, 인지도식은 사회관계 속의 중요한 타인들과 자아에 대해 발달하는 내적 표상으로 구성된다. 아동기 중요한 타자인 부모와 안정적 관계를 통해 긍정적인 인지도식을 갖게 되면 이를 바탕으로 타인과 자신, 세계에 대해 확신과 신뢰감을 갖는다. 아동기 양육자와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 인지도식은 발달단계에 따라 형성되는 인지도식의 근간을 이루며 평생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최혜경 외 2004). 따라서 아동기 부모에 의한 학대 경험은 자아와 타자, 세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지도식을 활성화하여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심리적, 정서적 부적응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아동들은 학교에 들어가면서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 또래집단에 들어가게 된다. 청소년기에 진입하면서 부모로부터 받았던 정서적 지지를 기초로 또래들과 교류하면서 사회적 관계기술과 사회적 능력을 획득하며 자아정체성의 세분화와 통합이 발생한다(장휘숙 2004). 특히 청소년기는 부모보다 또래집단의 가치가 더 큰 영향을 주는 시기이므로, 또래관계의 어려움은 부정적인 인지도식을 크게 증가시킨다. 그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크게 떨어지고, 다양한 심리적 부적응 문제

가 발생하며 성인기 진입을 위해 필요한 심리적, 사회적 기술의 습득이 어렵게 된다(장휘숙 2004; 홍나미 2010). 결과적으로 또래폭력 피해는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심리적 부적응을 야기할 수 있다.

일부 연구들의 경우 또래폭력의 피해가 장기적인 효과를 미쳐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했다. 외국 문헌들의 경우, 청소년기에 또래폭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성인기에 자살시도를 2배 이상 혹은 3배 정도 많이 실행하고(Meltzer et al. 2011; Roeger et al. 2010; Staubli & Killias 2011; Copeland et al. 2013), 아동기 학교폭력에 노출된 이후 30년 혹은 40년이 지난 장년기에 우울이나 자살위험이 매우 높게 나타남을 보여준다(Takizawa et al. 2014). 또래폭력 피해가 우울, 불안, 자존감 저하, 외로움, 통제감 상실, 취약감, 대인관계 문제, 등교 거부 등 다양한 적응문제를 일으키고, 이러한 부정적 영향이 폭력피해를 경험하는 시기를 넘어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Olweus 1994).

주목할 점은 아동기 또래에 의한 폭력피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개선되거나 호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에 걸쳐 영향을 준다(Roger et al. 2010)는 점이다. 성인에 의한 학대와 또래폭력을 동시에 경험한 아동들은 초기 성년기에 이르렀을 때에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정신적 문제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훨씬 많았다. 눈여겨 볼 것은 성인에 의한 학대보다 또래폭력이 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보고가 존재한다는 점이다(Lereya et al. 2015).

국내 연구의 경우 자살생각에 대한 또래폭력의 장기적인 영향을 검토하는 연구는 드문 편이다. 이완정·정혜진(2010)은 아동청소년기 전체 기간(7년) 동안 또래폭력 피해 경험의 차별성에 따라 계층을 구분해 발달단계에 따른 피해양상의 차이를 파악하였다. 이 연구에서 초기 피해 후 피해감소 계층의 경우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피해가 거의 없는 저수준 계층에 가까울 정도로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2학년의 시점에서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타인과 어울리지 못하는 위축성향, 우울, 불안, 자살생각 등이 저수준 계층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장기 종단연구인 권세원 등(2013)의 연구는 중학교 시기의 피해경험이 고등학교 시기의 자살생각에 영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박현선 외(2014)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권재기(2011)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의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아동청소년기 또래폭력이 누적적으로 청소년

들의 불안, 우울 자살생각, 자살충동 등에 영향 있음을 밝혀냈다.

이처럼 국내 연구들의 경우, 또래폭력의 장기적 영향을 다루는 경우에도 연구 대상이나 연구범위에서 초등학교~고등학교 시기의 청소년들에 머무르고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포함하는 아동기나 청소년 초기에 경험한 또래폭력이 성인기 우울이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국내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하나 더 지적할 점은, 성인에 의한 아동학대의 경우 많지는 않으나 상이한 학대 피해유형의 효과 차이가 연구되고 있는데(Mina & Gallop, 1998; Spertus et al. 2003; 박경 2005; 김재엽 외 2013; 안혜진 2016) 비해, 또래폭력 피해의 경우 상이한 피해유형의 효과 차이에 주목하는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과거에 아동에 대한 폭력은 주로 신체적 폭력을 지칭하면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신체적 폭력 연구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신체적 폭력과 심리적 폭력을 구분하고 있다(이명진 외 2007: 11). 이유는 신체적 폭력과 심리적 폭력의 효과가 서로 다른 것으로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체적 폭력피해는 우울과 자살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들이 다수 존재할지라도(Kanghinrichsen-Rohling et al. 1998; Nilsen & Conner 2002; 김아진 2006; 장정보 2007) 심리적 폭력에 비해 공격성이나 외현적 문제들(비행, 무단결석, 약물남용 등)과의 관련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Arata et al. 2007; 김미경·배화옥 2016: 10). 이에 비해 심리적 폭력피해는 신체적 폭력피해보다 정신병리의 내재화(우울, 불안, 공포 등)나 성격장애와의 관련성이 더 많이 보고되고 있다(Mullen et al. 1996; 하수홍·장문선 2013; 권지은 외 2012).

그러나 신체적 폭력피해와 심리적 폭력피해의 구분은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진행되고 있으나 또래폭력에서 양자를 구분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에서의 빈틈을 보강하고자 본 연구는 초등학교와 18세 미만 아동기의 또래폭력 피해유형을 신체적 폭력과 심리적 폭력으로 구분하여 각각이 성인기 우울이나 자살생각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제까지의 문헌 검토를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또래폭력 피해 유형을 신체적 폭력피해와 심리적 폭력피해로 구분하고 이들이 성인기 우울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살펴본다. 둘째, 아동기의 신체적 폭력피해와 심리적 폭력피해가 성인기 자살생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

본다. 셋째, 18세 미만의 신체적 폭력피해와 심리적 폭력피해가, 자살생각의 가장 강력한 원인으로 알려진 우울을 통제한 후에도, 성인기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해 보기로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자료 및 분석방법

이 글은 2012년에 실시된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n General Social Survey, KGSS)를 이용해 작성되었다. KGSS는 한국사회의 구조 및 변화 연구와 국제비교 연구에 사용하기 위한 사회과학 기초자료로서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단위의 표본조사이다. 2012년 조사 주제가 ‘한국인의 정신건강’이었기 때문에 신체적 폭력피해, 심리적 폭력피해, 우울, 자살생각에 관한 질문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KGSS 2012는 다단계지역확률표집방법에 의거해 여러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역별 집락표본을 추출한 후, 표집된 가구 내에서 만 18세 이상 성인 가구원들 가운데 생년월일이 가장 빠른 사람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표본을 구성했다(김상욱 외 2013). 2012년의 유효표본 수는 1,396명이었다. 본 연구의 관심이 18세 미만 아동기 또래폭력의 장기적 효과이므로 아동기 폭력 가해자가 친구나 동년배(선배나 후배 포함)인 사례들만을 선별해 분석하였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는 모두 178사례였다. 분석방법으로는 SPSS 18을 사용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회귀분석의 요건 충족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변수구성 과정에서 신뢰도 분석을, 변수의 속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사용하였다.

2. 변수의 구성과 측정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의 유형, 정의와 속성, 척도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 1>에 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독립변수는 신체적 폭력피해와 심리적 폭력피해이다. 이 변수들은 브렘너 외(Bremner et al. 2000)가 개발한 18세

이전 아동청소년들의 신체적, 정서적 외상 경험 척도를 전홍진 외(Jeon et al. 2009; Jeon et al. 2012)가 수정한 것이다. 본래 브렘너가 개발한 초기 외상 경험 평가도구(the early trauma inventory)는 발달단계에 따라 학대 혹은 외상의 빈도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전홍진 외(Jeon et al. 2009; Jeon et al. 2012)는 본래의 척도를 2009년에는 대학생들, 2012년에는 대학생들 및 19세~66세의 외래환자들에게 거듭 적용하여 자기보고식 한국판 초기 외상 평가도구(Korean Version of the Early Trauma Inventory Self Report-Short Form: ETSR-SF)를 구성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질문들은 ETSR-SF 가운데 신체적 폭력경험과 심리적 폭력경험 척도이다. 이 척도는 발달단계에 따른 폭력피해 경험을 측정할 수 있도록 피해상황을 질문하고 가해자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¹⁾ 그런 후 별도의 문항에서 폭력의 주된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질문한다. 즉, 본 연구의 신체적 폭력 및 심리적 폭력의 질문문항들은 발달단계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와 또래폭력 등 광범한 폭력피해 경험에 적용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자세한 질문문항은 <표 1>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우울은 자살생각을 포함하는 모형에서는 통제변수로 사용되지만 자살생각을 미포함하는 모형에서는 종속변수가 된다. 본 연구의 우울 척도는 크론크 외(Kroenke et al. 2001)가 정신질환의 인지와 진단을 위해 개발한 것을 한국 상황에 맞게 수정한 우울진단 문항들(김욱 2012)을 사용했다. 이들 가운데 문항 간 상관성이 가장 떨어지는 1문항과 종속변수에 포함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포함하는 1문항을 제외한 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지난 2주간의 우울 관련 증상을 묻는 7개 항목들(<표 1> 참조)을 합산한 후,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자살생각은 종속변수로서, 지난 1개월간의 생각들을 질문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자살에 대한 막연한 생각 자체를 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자살에 대해 생각한 적이 있는지)과 자살에 대한 막연한 바람이나 소극적 욕구를 측정하는 문항(죽는 것이 낫겠다거나 죽었으면 하고 바란 적 있음), 적극적인 자살욕구인 자해욕망을 측정하는 3문항들을 합산한 후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1) 심리적 폭력피해 질문들 가운데 1문항만이 가해 주체가 명시되어 있어 이 문항은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표 1> 변수들의 유형, 내용, 속성

변수 유형	변수명	변수의 정의와 내용	변수 속성 및 척도
기본변수 (통제변수)	교육	조사대상자 최종 교육수준	① 초등학교 이하, ② 중등-고등학교 ③ 대학교 이상(전문대 포함)
	연령	조사대상자 연령	① 20 이하 ② 21-30 ③ 31-40 ④ 41-50 ⑤ 51-60 ⑥ 61-70 ⑦ 71 이상
	성별	조사대상자의 성	⑥ 남자 ① 여자
	가구소득	모든 가구원들의 수입	① 50 미만 ② 50~99 ③ 100~199 ④ 200~299 ⑤ 300~399 ⑥ 400~499 ⑦ 500~599 ⑧ 600 이상(단위: 만원)
	결혼상태	현재 동거하는 실질적인 배우자 유무	⑥ 있다 ① 없다 (2 범주로 재구성)
	주관 건강	주관적으로 인식한 건강	① 매우 좋다~⑤ 매우 나쁘다
독립변수	심리적 폭력피해	• ‘종종 멸시와 비웃음을 당한 적이 있음’ • ‘종종 무시당하거나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는 적이 있음’ • ‘종종 쓸모없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음’ • ‘종종 냉정하고 무관심하게 방치되거나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음’	⑥ 아니다 ① 그렇다(역코딩) 4 문항 합산 후 평균, $\alpha=0.78$
	신체적 폭력피해	• ‘뜨거운 물, 담배 등으로 화상 당한 적이 있음’ • ‘주먹으로 맞거나 발로 차인 적이 있음’ • ‘정별로 누군가 던진 물건에 맞은 적이 있음’ • ‘손바닥으로 얼굴을 맞은 적이 있음’ • ‘정별로 타인에게 심하게 밀리거나 밀쳐진 적이 있음’	⑥ 아니다 ① 그렇다(역코딩) 5 문항 합산 후 평균, $\alpha=0.67$
자살생각 포함시 통제변수 ※자살생각 미포함시 종속변수	우울	<지난 2 주간의 증상> ① 잠들기 어렵고 자꾸 깼/너무 많이 잠 ② 피곤감, 기력저하 ③ 식욕저하/과식 ④ 일에 흥미 없음 ⑤ 가라앉은 느낌/우울감/절망감 ⑥ 나쁜 사람이라는 느낌/실패자라는 느낌/내 탓에 나와 가족이 불행하다 느낌 ⑦ 신문, TV 집중어려움	① 전혀 없었다~④ 거의 매일 4 점 척도, $\alpha=0.849$
종속 변수	자살생각	<지난 1 개월 간의 생각과 경험> ① 자살에 대해 생각한 적 있음 ② 죽었으면 하고 바라거나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 ③ 자해하고 싶음	⑥ 아니다 ① 그렇다(역코딩) ($\alpha=.787$)

이 연구에서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은 기본변수이자 통제변수가 된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나이(김선영 외 2014; 강상경 2010)나 교육수준(강상경 2010; 이시은 2017), 소득수준(노용환 2007; 이재경 외 2016), 결혼상태(이윤석 2012; 전경숙·이효영 2011), 성별(김재엽 외 2014; 김지수 2012)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이 우울이나 자살생각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본 연구도 이들을 통제하기로 하였다. 주관적 건강 역시 자살생각과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김선영 외 2014; 이소영 2014) 통제변수에 포함하였다. 각 변수들의 속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1>을 참조하기 바란다.

IV. 분석결과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포함된 변수들의 평균과 범주비율을 살펴보았다. 먼저 사회인구학적 변수들부터 검토해보면 조사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37.69세였다. 18~20세 까지가 7.9%, 21~30세가 18%, 31~40세가 22.5%, 41~50세가 18.5%, 51~60세 15.2%, 61~70세 10.1%, 71세 이상 7.9%였다.

교육수준의 경우는 초등학교 이하 11.8%, 중학교~고등학교 43.8%, 대학교(전문대 포함) 이상 44.4%였다. 월평균 가구소득의 평균은 5.84로서 200~299만원 구간에 해당하는 정도이다. 50만원 미만인 6.8%, 50만원~99만원이 5.1%, 100만원~199만원이 13%, 200~299만원 20.3%, 300~399만원 19.2%, 400~499만원 13%, 500~599만원 6.8%, 600만원 이상이 15.8%였다. 학교폭력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성별 평균은 0.32로서 남성이 121명(68%), 여성이 57명(32%)이었다. 표집결과를 놓고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2배 가까이 많은데, 이것은 본 연구의 특성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선행연구들(김재엽 외 2014; 이지언·정익중 2013)에 따르면 18세 미만 아동기에 또래에 의한 폭력피해는 여성들보다는 남성들에게서 보다 빈번하게 많이 발생하고, 신체폭력이나 지속적인 따돌림 등의 경우 남학생들의 피해가 여학생들의 피해를 2배 이상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또래폭력 실태가 본 연구의 표집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 유무

는 배우자 없는 상태가 43.3%, 배우자 있는 상태가 56.7%이다. 주관적 건강인식은 평균 2.68로서 건강이 다소 좋다~좋지도 나쁘지도 않다는 구간에 머물러 있다.

독립변수인 신체적 폭력피해 경험의 평균은 0.3640으로서 피해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가 24.2%, 피해의 어느 한 유형에라도 해당하는 경우가 75.8%였다. 심리적 피해경험은 0.2360으로서 심리적 피해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가 56.2%, 어느 한 유형에라도 해당하는 경우가 43.8%로서 신체적 피해경험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보았듯이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많이 표집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우울의 평균은 1.676으로서 조사 대상자의 19.1%가 전혀 우울 경험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고, 80.9%의 응답자들은 여러 우울관련 증상 가운데 적어도 하나 이상에는 해당되는 경우에 속한다. 종속변수인 자살생각의 평균은 0.131로서 한번이라도 자살생각 관련 문항에 해당되는 생각을 한 사람들의 비율은 22%에 해당된다. 아동기에 신체적 폭력피해나 심리적 폭력피해를 전혀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의 자살생각 평균이 0.076으로서, 아동기 폭력피해자들의 자살생각에 비해 점수가 현저히 낮고 두 집단 간 차이($F=4.027$, $P=0.045$)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폭력무경험 집단의 우울점수 역시 1.502로서 또래폭력 경험집단보다 유의하게 점수가 낮았다($F=4.694$, $P=.031$).²⁾

2. 아동기 신체적, 심리적 폭력의 우울, 자살생각에 대한 효과

우울이나 자살생각에 대해 아동기의 신체적 폭력피해와 심리적 폭력피해가 성인기 자살생각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우선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2) KGSS 2012는 아동기 신체적 폭력피해와 심리적 폭력피해를 질문할 때 가해자(혹은 피해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질문한 후, 별도의 문항에서 폭력의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질문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기 폭력피해 경험이 없는 사람들($N=708$)의 경우는 학교폭력만이 아니라 부모폭력(조부모포함, $N=408$)도 없는 경우이다. 부모폭력만 있는 사람들의 경우 자살생각 평균은 0.116, 우울은 1.696이다. 일변량분석 결과 자살생각에 대해 폭력피해 유무에 따른 집단 간 차이뿐만 아니라 세 집단 간에도 유의한 차이가 존재했다(또래폭력 $F=5.302$, $P=.022$; 부모폭력 $F=7.985$, $P=.005$; 폭력무경험 $F=5.182$, $P=.023$). 그러나 우울에 대해서는 폭력 무경험집단과 경험집단(부모폭력 집단과 또래폭력 집단) 간에만 차이가 날뿐 폭력경험 집단들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2> 자살생각 관련 변수들의 상관관계

변수명	1	2	3	4	5	6	7	8
자살생각	1							
우울	.461**	1						
심리 폭력	.128	.284**	1					
신체 폭력	.163**	.221**	.381**	1				
나이	-.102	-.172*	-.044	-.108	1			
교육	-.045	.039	.023	.088	-.628**	1		
소득	-.175*	-.019	.012	.179*	-.409**	.524**	1	
주관건강	.265**	.313**	.069	-.073	.258**	-.233*	-.207**	1

주: * $p < .05$, ** $p < .01$, *** $p < .001$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0.628 \sim 0.524$ 였고, VIF계수는 $1.097 \sim 2.302$ 로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독립변수들 중에 특정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지나치게 높을 때, 한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오면 이 변수와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는 거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온다. 보통 상관관계 0.7을 초과하거나, 다중공선성으로 인해 표준오차가 증가된 정도를 나타내는 분산팽창계수가 2.5 이상일 때 다중공선성을 의심하게 된다(김태근 2006). <표 2>에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표시하고, <표 3>에서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먼저 우울을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 A의 분석결과를 보면 우울에 대해 신체적 폭력($\beta = .451$), 심리적 폭력($\beta = .329$), 주관적 건강($\beta = .205$), 나이($\beta = -.103$) 순서로 영향을 미쳤고, 이 모형은 우울의 26.3%를 설명했다. 아동기에 신체적 폭력피해와 심리적 폭력피해를 겪었을수록, 주관적 건강 인식이 나쁠수록, 나이가 적을수록 우울이 커졌다.

우울이 통제되지 않은 모형 B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자살생각에 대해 신체적 폭력($\beta = .201$), 주관적 건강 인식($\beta = .073$), 나이($\beta = -.042$), 가구소득($\beta = -.029$)의 순서로 영향을 드러냈고, 이 모형이 자살생각의 18.4%를 설명했다.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을수록, 주관적 건강이 나쁘다고 인식할수록, 나이가 적을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자살생각이 커졌다. 통제변수들 가운데서는 주관적 건강인식

과 가구소득이 자살생각에 대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 결과들(강상경 2010; 노용환 2007; 우혜경·조영태 2013; 이유신·김한성 2016; 김선영 외 2014; 이소영 2014)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모형 A나 B에서 나이가 적을수록 우울과 자살생각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선행연구(박은옥 2014; 이소영 2014)와 다른 결과이다. 김선영 외(2014)의 경우는 연령에 따라 자살생각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했다. 본 연구결과는 나이가 어릴수록 또래폭력 경험의 경과 시기가 짧아 그것의 후유증을 더 겪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우울을 통제한 후에도 아동기의 신체적, 심리적 폭력피해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모형 C를 검토했다. 이 모형은 자살생각을 28% 설명했으며, 우울($\beta=.161$), 주관적 건강($\beta=.040$), 가구소득($\beta=-.029$)의 순서로 자살생각에 대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울할수록, 주관적 건강이 나쁠수록, 가구소득이 감소할수록 자살생각이 높아졌다. 우울을 통제한 모형 C에서 신체적 폭력피해와 심리적 폭력피해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3> 우울 및 자살생각에 대한 다중회귀 분석 결과

통제변수 독립변수	종속변수	우울		자살생각			
		모형 A		모형 B		모형 C	
		B	beta	B	beta	B	beta
통제변수-기본변수	성별	.154	.114	.021	.035	-.004	-.006
	결혼상태	.036	.029	.021	.037	.015	.027
	연령	-.103**	-.273**	-.042*	-.253*	-.026	-.154
	교육수준	-.036	-.044	-.015	-.043	-.010	-.027
	소득	-.013	-.042	-.031*	-.224*	-.029*	-.209*
	주관건강	.205***	.362***	.073***	.288***	.040*	.158*
	신체폭력	.451**	.207	.201*	.207*	.128	.132
독립변수	심리폭력	.329*	.170	.016	.018	-.037	-.043**
통제변수-검정요인		우울				.161***	.361***
표본수		176		176		176	
R^2		.263		.184		.280	
F		7.482***		4.744		7.225***	

주: * $p<.05$, ** $p<.01$, *** $p<.001$

V. 토의 및 맺는말

이 연구는 18세 미만의 아동기 또래에 의한 폭력피해 경험 가운데 신체적 폭력과 심리적 폭력이 성인기 우울이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자살생각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알려진 우울을 통제한 후에도 아동기 또래폭력 피해가 성인기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지, 신체적 폭력과 심리적 폭력이 어떻게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지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분석결과와 토의점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첫째, 우울을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 A에서 아동기 심리적 폭력피해와 신체적 폭력피해 모두 우울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울이 통제되지 않은 모형 B에서 또래폭력의 주요 양상인 신체적 폭력피해가 자살생각에 대해 효과를 드러냈다. 아동기 또래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학교졸업 이후 성인기에 이르러서도 또래폭력으로 인해 우울과 자살생각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아동기 폭력피해 경험이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외국의 선행연구들로부터 우리나라 역시 유사한 결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러한지 여부는 경험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사회제도와 문화맥락이 상이한 외국의 경험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재현될지 여부는 검증이 필요로 하는 문제이므로 본 연구에서의 검증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우울이 통제되지 않은 모형 B에서 신체적 폭력만이 효과를 드러내고 심리적 폭력은 효과를 드러내지 않았다. 이것은 또래에 의한 심리적 폭력은 그것 자체로서 성인기 자살생각에 직접적 영향이 있지는 않음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이 결과를 두고 아동기 심리적 폭력피해가 성인기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본 연구의 경우 성인기 우울에 대해서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심리적 폭력 역시 효과를 드러냈다. 선행연구들(Flannery et al. 2004; Joiner 2005; 권재기 2001; 김희수 외 2006; 홍나미 2011)이 지적하듯이 또래폭력 피해는 우울, 자아존중감 저하, 대인관계 문제 어려움 등과 같이 여러 심리적

부적응과 관련되면서 자살생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심리적 폭력피해가 발현되는 기제가 신체적 폭력피해보다 좀 더 복잡한 양상을 가진다고 해석해 볼 수 있겠다.

셋째, 본 연구는 또래에 의한 폭력피해를 신체적 폭력과 심리적 폭력으로 구분해 살펴보고 있다. 또래폭력을 대상으로 하는 선행연구들 가운데 신체적 폭력피해와 심리적 폭력피해를 구분해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다만 성인에 의한 아동학대 연구에서 신체적 폭력과 심리적 폭력의 피해양상을 구분한 연구들이 존재한다. 국내연구들의 경우 연구들마다 상이한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외국처럼 신체적 폭력이 우울과 자살생각(내재화 문제들에 해당)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김아진 2006; 장정보 2007)이 있는가 하면, 일부 연구들은 공격성이나 외현적 문제들(비행, 무단결석, 약물남용 등)과의 관련성이 더 많다는 연구결과(변은실·이주영 2016)를 보여주기도 한다. 반면에 일부 연구(박경 2005)는 외국의 경우(Arata et al. 2007; Mullen et al. 1996)와 달리 성인에 의한 심리적 폭력만이 자살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면서 외국의 선행연구들과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은 체벌문화가 발달한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들이 부모의 신체적 학대에 대해 둔감하기 때문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박경 2005). 또래폭력을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는 신체적 폭력만이 성인이 자살생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분석결과로서는 또래폭력 중 신체적 폭력만이 자살생각에 유의한 효과를 보이는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다만 가능한 해석을 시도해 보면, 우선 또래에 의한 심리적 폭력이 존재할 경우에도 가족과의 연대감이 강하거나 교사나 또 다른 또래들의 지지가 존재하거나 높은 학업성취로 인해 자아존중감이 높을 경우 심리적 폭력 효과가 현저히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또래집단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서구에 비해 또래보다는 가족의 영향력이 매우 강한 우리사회의 문화특성도 관련되었을 것이다(이수인 2010). 본 연구결과는 또래폭력의 효과가 부모에 의한 폭력피해의 효과와는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둘 수 있다.

넷째, 우울이 통제된 모델에서 자살생각에 대해 심리적 폭력피해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물론 신체적 폭력피해의 효과가 사라지고 우울만이 효과를 나타냈다. 이것은 자살예방에서 우울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보여주는 결과이

자, 아동기 또래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폭력피해의 경우, 우울이 조절된다면 자살생각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음을 말해주기도 한다. 달리 표현하자면 아동기 또래폭력의 피해경험은 피해 그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우울 등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의 유발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또래폭력이 발생한 경우에도 심리적 부적응의 발생에 잘 대처한다면 또래폭력경험이 성인기까지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차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또래폭력의 예방은 물론 발생 이후 개입과 대처가 몹시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섯째, 심리적 폭력피해의 경우 신체적 폭력보다 우울과 더 강한 상관성을 가지면서 우울에 대한 효과에서 신체적 폭력보다 약한 관계성을 보였고, 우울이 통제된 모형에서나 그렇지 않은 모형에서 자살생각에 대해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즉, 심리적 폭력피해는 신체적 폭력피해보다 우울과 상관관계가 더 크면서도 우울이 결정적 변수가 되는 자살생각에 대해서는 효과를 나타내지 않은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러한 결과는 신체적 폭력피해의 효과가 심리적 폭력피해의 효과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심리적 폭력피해의 효과가 발현되는 기제가 신체적 폭력피해보다 더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신체적 폭력피해의 경우 우울에 집중하여 개입한다면 자살생각 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지만, 심리적 폭력피해의 경우는 우울에 더하여 대인관계 문제, 자아존중감, 무가치감 등과 같은 좀 더 다양한 심리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여섯째, 자살생각에 대한 영향에서 신체적 폭력과 심리적 폭력의 차이가 확인된 점은 또래폭력 피해에 대한 대처에서 폭력 유형에 따른 상이한 개입방식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지적해 두기로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직접적인 종단연구가 아니라 과거 회상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회상자료의 경우 현재의 상황과 관점에서 과거 경험이 과소평가 되거나 과대평가 될 위험이 존재한다. 이 점은 본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둘째, 본 연구에 사용된 질문지(KGSS 2012)는 아동기 피해 유형-부모학대, 형제폭력, 이웃폭력, 또래폭력 등-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피해 유형 하나만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가장 주된 피해경험 이외에 부수적으로 경험한 피해가 있을 경우, 그것을 통제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

문제 또한 본 연구가 지닌 한계점이다. 셋째, 이 연구는 아동기 주요 폭력피해로 또래폭력 경험을 꼽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연구를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밝혀 둔다. 앞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아동기 또래폭력 경험이 성인기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 보고, 더 나아가 초등학교 저학년 경험을 포함하는 상이한 또래폭력 유형들이 성인기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의 구체적인 인과연쇄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종단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대영. 2014.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족탄력성, 사회적 지지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경로분석.” 《인문사회21》 5(1): 57-89
- 강상경. 2010. “우울이 자살을 예측하는가?: 우울과 자살태도 관계의 성별·연령 차이.” 《사회복지연구》 41(2): 67-99.
- 권세원·이동은·장은혜·한기주. 2013. “고등학교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중학생 시기 학교폭력피해경험의 종단적 영향.” 《청소년학연구》 20(11): 203-229.
- 권재기. 2011. “집단따돌림 피해경험의 발달양상과 내면화, 외현화 문제행동의 변화-잠재계층 성장분석(LCGA).” 다집단 성장혼합모형(GMM)을 이용한 종단연구, 《한국아동복지학》 (34): 95-126.
- 권지은·황순택·이승복. 2012. “정서적 학대 및 방임과 성격장애.”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1(1), 75-87.
- 김미경·배화옥. 2016. “정서학대와 청소년 자살생각의 시간적 변화추이에 대한 연구.” 《생명연구》 41: 1-28.
- 김상욱·김지범·문용갑·신승배. 2013. 한국종합사회조사 2012,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김선영·정미영·김경나. 2014. “한국성인의 연령계층별 자살생각 관련 요인: 국민건강영양조사 제5기 3차(2012) 자료를 이용하여.”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31(2): 1-14.
- 김아진. 2006. “신체적 피학대 아동의 귀인양식과 우울.” 단국대학교 특수교육학과 석사논문.
- 김 욱. 2012.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PHQ-9)을 활용한 대학생의 우울감

- 및 영향요인 연구.” 《한국사회복지교육》 20: 203-229.
- 김은영. 2014. “학교폭력피해경험, 우울감, 청소년의 자살에 대한 생각의 관계 검증 연구: 일반긴장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논집》 11(3): 93-116.
- 김재엽·이근영. 2010. “학교폭력피해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7(5): 121-149.
- 김재엽·장용언·서정열·박지민. 2014. “학교폭력피해경험이 청소년의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복지연구》 16(2): 83-110.
- 김재엽·장용언·이승준. 2013. “부모로부터의 방임·정서학대 및 신체학대 경험이 청소년의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교폭력 가해경험의 매개효과” 《학교사회복지》 25: 157-183.
- 김지수. 2012.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관련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12): 261-268.
- 김태근. 2006. 《U-Can 회귀분석》 인간과 복지.
- 김현미. 2005. “해결중심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여성의 자존감과 우울에 미치는 효과.” 《정신간호학회지》 14(1): 5-12.
- 김현순·김병석. 2008. “노인과 청소년의 자살생각 비교 연구.” 《한국노년학》 28: 325-343.
- 김형숙·전경자·김윤미. 2013. “한국 노인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33: 349-363.
- 김희수·이재토·홍성훈. 2006. “학교폭력가해경험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전략과 폭력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매개효과.” 《한국교육문제연구》 24: 79-98.
- 노용환. 2007. “자살위험의 미시적 결정요인 분석.”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13(1): 41-58.
- 문지혜·정혜정. 2015. “대학생이 지각하는 성장기 폭력 경험과 폭력허용도 및 데이트 폭력의 관계.” 《가족과 가족치료》 23: 627-653.
- 박경. 2005. “청소년의 아동기 학대경험과 자살사고 간의 관계에서 문제 해결과 사회적 지지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2(2): 131-147.
- 박병금. 2007. “청소년의 자살생각 관련 요인: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16(3): 505-522.
- 박은옥. 2014. “한국 성인의 성별 자살생각 관련 요인 분석.” 《농촌의학·지역보건》 39

- (3): 161-175.
- 박재근. 2015. “학교폭력이 아동 청소년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자본의 조절효과 연구” 국정관리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현선·김미정·정익중. 2014.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 발달유형에 따른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 양상.” 《사회복지연구》 45(2): 5-30.
- 변은실·이주영. 2016. “정서적 학대가 아동의 외현적 및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성별에 따른 거부민감성의 매개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4): 1125-1149.
- 서승진. 2017. “‘부산여중생 폭행사건’이어 강릉 10대 청소년 집단 폭행.” 국민일보, 2017.9.5 입력, 2017.9.7. 검색.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731867&code=61121111&cp=nv>.
- 서정호. 2017. “초등학생이 아프다 ⑤초등생 학교폭력 고교생의 7배.” YTN뉴스, 2017. 6.30 입력, 2017.7.3 검색.
http://www.ytn.co.kr/_ln/0103_201706301752453306
- 안혜진. 2016. “부모의 학대 및 방임이 청소년의 우울과 학교적응 간의 중단연구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12): 475-493.
- 우혜경·조영태. 2013. “빈곤의 동태와 자살생각.” 《보건과 사회과학》 34: 5-35.
- 이명진·조주연·최문경. 2007. “부모의 아동학대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사회연구』 14(2): 9-42.
- 이상균·정현주. 2013. “학교폭력 경험과 부모양육 행동 간의 중단적 관계 및 잠재유형분석: 부모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24: 1-29.
- 이소영. 2014. “성인의 성별에 따른 자살생각과 우울경험 관련요인.”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8(1): 71-86.
- 이수인. 2010. “집단주의 형성 요인과 과정, 성별 차이에 대한 연구.” 《경제와 사회》 256-299.
- 이시은. 2017. “한국 성인의 생애주기별 자살생각의 위험요인-한국 사회·심리적 불안 조사.” 《성인간호학회지》 29(2): 109-118.
- 이완정·정혜정. 2010. “아동청소년기 폭력노출 경험과 대학생의 정신건강.” 《아동의 권리》 14(3): 385-407
- 이유신·김한성. 2016. “장애인의 자살생각과 자살시도: 가구소득과 차별 경험의 영

- 향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33: 5-34.
- 이윤석. 2012. “혼인상태에 따른 중년남녀의 건강행위와 건강상태.” 《한국인구학》 35(2): 103-131.
- 이재경·이래혁·이은정·장혜림. 2016. “저소득층의 자살생각에 관한 탐색적 연구-물질적 어려움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8(3): 181-201.
- 이종익·김승혜·차민희·이선영. 2017. 《전국학교폭력 실태조사 연구 2016》 푸른나무청예단.
- 이혜진. 2016. “학교폭력피해와 자살위험의 관계에서 인지적재해석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23(7): 253-272.
- 임재연. 2013. “또래 괴롭힘 참여역할에 따른 긍정적 강점의 차이-또래 괴롭힘 예방을 위한 피해방어자의 긍정적 강점”, 《학교사회복지》 24: 131-151.
- 장정보. 2007. “대학생들의 아동기 정서적 학대경험과 우울수준간의 관계에서 비판과 거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한림대학교 심리학과 석사학위논문.
- 장휘숙. 2004. 《청년심리학》 박영사.
- 전경숙·이효영. 2011. “결혼상태가 우울 및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연령별·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보건의료산업학회지》 5(3): 179-190.
- 정현주. 2011. “아동기 또래괴롭힘 가해/피해경험과 문제행동의 발달체적간 관계와 예측요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5. “2014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푸른나무 청예단 Happy Friends, 2015.5.22 입력, 2017.7.7. 검색.
<http://blog.naver.com/bakbht>
- 최혜경·신수진·강진경, 2004. 《사랑학》, 교문사.
- 하수홍·장문선. 2013. “정서적 학대 경험과 경계선 성격특성 간의 관련성에서 거절민감성,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4): 833-852.
- 하진의. 2014. “학교폭력피해경험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우울과 부모 애착의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6(3): 55-75.
- 한상희. 2017. “초등학생이 아프다 ① 학교폭력피해자 10명 중 6명은 초등학생.” YTN 뉴스, 2017.06.27 입력, 2017.07.03. 검색.
http://www.ytn.co.kr/_ln/0103_201706271000070845
- 홍나미. 2011. “부모학대와 또래괴롭힘이 청소년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

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Arata, C.M., J. Langhinrichsen-Rohling, D. Bowers, and N. O'Brien. 2007. "Differential Correlates of Multi-type Maltreatment among Urban Youth." *Child Abuse & Neglect* 31(4): 393-415.
- Bifulco, A., P.M. Moran, R.Baines, A. Bunn, and K. Stanford. 2002. "Exploring Psychological Abuse in Childhood: II. Association with Other Abuse and Adult Clinical Depression." *Bulletin of the Menninger Clinic* 66(3): 241-258.
- Bosworth, K., D.L. Espelage, and T.R. Smith. 1999. "Factors Associated with Bullying Behavior in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9: 341-362.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 .2.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New York: Basic Books.
- Copeland, W.E., D. Wolke, A. Angold, and E.J. Costello. 2013. "Adult Psychiatric Outcomes of Bullying and Being Bullied by Peers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JAMA Psychiatry* 70(4): 419-426.
- Flannery, D.J., K.L. Wester, and M.I. Singer. 2004. "Impact of Exposure to Violence in School on 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and Behavior."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2(5): 559-573.
- Fremouw, W.J., M. De Perczel, and T.E. Ellis. 1990. *Suicide Risk: Assessment and Response Guidelines*. Pergamon Press.
- Jeon, H.J., M.S. Roh, K.H. Kim, J.R. Lee, D. Lee, S.C. Yoon, and B.J. Hahm. 2009. "Early Trauma and Lifetime Suicidal Behavior in a Nationwide Sample of Korean Medical Student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19(1): 210-214.
- Jeon, J.R., E.H. Lee, S.W. Lee, E.G. Jeong, J.H. Kim, D. Lee, and H.J. Jeon. 2012. "The Early Trauma Inventory Self Report-short Form: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Korean Version." *Psychiatry Investigation* 9(3): 229-235.
- Joiner, T.E. 2005. *Why People Die by Suicid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Kandel, D.B., V.H. Raveis, and M. Davies. 1991.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ce: Depression, Substance Use, and Other Risk Facto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0(2): 289-309.
- Kessler, R.C., G. Borges, and E.E. Walters. 1999. "Prevalence of and Risk Factors for Lifetime Suicide Attempts in the National Comorbidity Survey."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6(7): 617-626.
- Kroenke, K., R.L. Spitzer, and J.B. Williams. 2001. "The PHQ-9: Validity of a Brief Depression Severity Measure." *Journal of General Internal Medicine* 16(9): 606-613.
- Langhinrichsen-Rohling, J., C.M. Monson, K.A. Meyer, J. Caster, and A. Sanders. 1998. "The Associations among Family-of-origin Violence and Young Adults' Current Depressed, Hopeless, Suicidal,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Journal of Family Violence* 13(3): 243-261.
- Lereya, S.T., W.E. Copeland, E.J. Costello, and D. Wolke. 2015. "Adult Mental Health Consequences of Peer Bullying and Maltreatment in Childhood: Two Cohorts in Two Countries." *The Lancet Psychiatry* 2(6): 524-531.
- Maris, R.W. 1981. *Pathways to Suicide: A Survey of Self-destructive Behaviors*. Baltimore, MD: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 Meltzer, H., P. Vostanis, T. Ford, P. Bebbington, and M.S. Dennis. 2011. "Victims of Bullying in Childhood and Suicide Attempts in Adulthood." *European Psychiatry* 26(8): 498-503.
- Mina, E.E.S. and R.M. Gallop. 1998. "Childhood Sexual and Physical Abuse and Adult Self-harm and Suicidal Behaviour: A Literature Review." *The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43(8): 793-800.
- Mullen, P.E., J.L. Martin, J.C. Anderson, S.E. Romans, and G.P. Herbison. 1996. "The Long-term Impact of the Physical, Emotional, and Sexual Abuse of Children: A Community Study." *Child Abuse & Neglect* 20(1): 7-21.
- Nilsen, W. and K. Conner. 2002. "The Association between Suicidal Ideation and Child and Adult Victimization." *Journal of Child Sexual Abuse* 11(3): 49-62.

- Olweus, D. 1993. "Victimization by Peers: Antecedents and Long-term Outcomes. In Rubin, K.H. and J.B. Asendorpf(eds.). "Social Withdrawal, Inhibition, and Shyness in Childhood." *Psychology Press* 315-341.
- Olweus, D. 1994. "Annotation: Bullying at School: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Child Psychology & Psychiatry & Allied Disciplines* 35(7): 1171-1190.
- Olweus, D. 1995. "Bullying or Peer Abuse at School: Facts and Intervention."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4(6): 196-200.
- Rainer, J.D. 1984. "Genetic Factors in Depression and Suicide."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38(3): 329-340.
- Roeger, L., S. Allison, R. Korossy-Horwood, K.A. Eckert, and R.D. Goldney. 2010. "Is a History of School Bullying Victimization Associated with Adult Suicidal Ideation?: A South Australian Population-based Observational Study."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98(10): 728-733.
- S Martsof, D. 2004. "Childhood Maltreatment and Mental and Physical Health in Haitian Adults."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36(4): 293- 299.
- Smokowski, P.R. and K.H. Kopasz. 2005. "Bullying in School: An Overview of Types, Effects, Family Characteristics, and Intervention Strategies." *Children & Schools* 27(2): 101-110.
- Spertus, I.L., R. Yehuda, C.M. Wong, S. Halligan, and S.V. Seremetis. 2003. "Childhood Emotional Abuse and Neglect as Predictors of Psychological and Physical Symptoms in Women Presenting to a Primary Care Practice." *Child Abuse & Neglect* 27(11): 1247-1258.
- Staubli, S., and M. Killias. 2011. "Long-term Outcomes of Passive Bullying During Childhood: Suicide Attempts, Victimization and Offending." *European Journal of Criminology* 8(5): 377-385.
- Takizawa, R., B. Maughan, and L. Arseneault. 2014. "Adult Health Outcomes of Childhood Bullying Victimization: Evidence from a Five-decade Longitudinal British Birth Cohort."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71(7): 777-784.